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62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월 25일(음력 12월 26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스님: 복 많이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질문자(남): 심음회 회원입니다. 스님께서는 고구정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까 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미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용지를 보시고) 이 종이틀요, 이렇게 뒤집어서 속 한번 집어 보세요. 뭐 다 요량이지.

▲질문자(남): 먼저, 신선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연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이 싫어서 신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이야기처럼 세상이 싫어서, 왜 이런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러져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 더 해치려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강한지, 또 이런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런데 그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국민성이 물질로만 치달는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계의 그 모든 너그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숨겨져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설질 않습니다. 보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섰다가 하더라도 치워 버리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관념상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보죠. 아까 내가 딱 먹는 사람 얘기를 했죠. 저 중국의 왕이 '음, 조선을 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이야기요. 그럴 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모두가... (질문자에게) 그곳이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고개짓을 하시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 생명은 들어 아니기 때문에,

▲큰스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처가 봐도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냐?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 보죠. 맥들 음식에 증생들이,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혼자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자(남): 더불어 먹었죠.

▲큰스님: 더불어 먹었죠?

▲질문자(남): 예.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다' 그리고 내세울 수 없죠?

▲질문자(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共生) · 공심(同心) · 공용(公用) · 공제(共體) · 공식화(供食化) 하고 천차만별로 다 그렇게 나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질문자(남): 예.

▲큰스님: 그랬으니 이게 딱처음은 대로 그러한

데 뭐 그게... 할 일은 해야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다고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다 내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다' 한다면 이

속의 생명체들이 '흠, 네가 했다고, 네가 안다고 한다면 너 혼자 실컷 알아 보라. 너 혼자 실컷 해 보라.' 이러고선 작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자꾸 빗나가게끔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는 게 이 부처님들의 목적이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표현을 하지만 '내 몸통이 속에 많은 증생들이 들어 있으니 나 혼자만 이라고 세울 게 없는 것이 여려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큰스님께서 가르치시는 여러 생활의 방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할 정도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몇 년간의 한마음 공부나 수행하는 태도에 오히려 방편과 자만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고, 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재하자고 말하고 싶어도 왜 걸리냐는 상투적인 반응이 싫어서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난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때

▲질문자(남): 결국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스님: 그렇죠. 평등공의 법이라는 것은 첩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지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부 한손이 돼서 응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질문자(남):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에게 신용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류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큰스님께서 좋은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나 가족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큰스님의 말씀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한국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예는 예 노릇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하겠지 누가, 아니, 어른 노릇 해야 할 때 노릇 하라고 그랬고, 애 노릇 해야 할 때 어른 노릇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속상해서 병이 들까 봐, 자기의 속박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효(孝)고 거짓이 아니죠. 또 자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못하죠? 그게 거짓 아닌 거짓이면서도 아주 참, 뜻이 깊은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거짓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질문자(남): 네, 스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어른이 다 됐다고 우기는 그런 입장에...

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권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스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큰스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그러죠. 애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공부를 하되 진짜로 말고도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으나 이렇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런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야' 이겁니다. 허허, 먹되 무명을 쓰고 애 탄지말하는 증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야. 그 몸통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 그게 다 공부 재료로 알고 감사히 생각해야

혹은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부자를 건너다 볼 수도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예, 허허허... 포기해서 신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신선이라는 것은, 내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도리를 알아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도리를 안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에요. 그러나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는 거 집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오는 대로 모든 것을 대치해서 놓고, 가는 것도 집지 말아라.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공부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신선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질문자(남):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처지가 힘들니까 신선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나왔는가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스님: 응응,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서 아주 피차 못하고 그냥 사는 거니까, 자기가 벌려 놓은 거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나오는 것도, 못나게 나오는 것도, 모습을 짐승으로 나오는 것도, 뭐 게로 나오는 것도. 모두가,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가 지어 놔기 때문에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구한테 원할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닦치는 대로 그것을 재료로 알고 '어, 내가 이렇게 해 봤으니까 이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리고 선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간단면 다시금 그게 바꾸어지죠. 운명이나 팔자,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 인과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없어지죠. 지금 없애고 가시는 길이죠. 모두.

▲질문자(남): 예, 스님 말씀을 '현실에 오는 어려움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큰스님: 예, 사실인 걸요, 뭐.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어느 도인의 말로는 우리 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감이 태어나는 해도 이 땅이 골육상전의 기운이 있는지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인물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세상을 살아 보아도, 나라를 망치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적이나 경쟁자보다는 같은 민족이나 친한 사람의 해침이 원인인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심한 것으로 알

즉 세계로 비추어 볼 때 전력이 들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력들은 다 통하게 돼 있고. 어떤 용도로 쓰든 전력은 전력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바퀴는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불바퀴와 저 불바퀴를 한데 합치면 (손바닥을 서로 부딪쳐 보시고) 돌이 아닌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든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화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딱 데서는 할 수가 없어.' 하고 관해 보세요. 모두 물질계에서 처참하게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보이면 또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마음들을 한데 합쳐서 기술어 보시면 중국에서 말한 뜻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질문자(남): 결국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스님: 그렇죠. 평등공의 법이라는 것은 첩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지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부 한손이 돼서 응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질문자(남):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에게 신용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류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큰스님께서 좋은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나 가족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큰스님의 말씀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한국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예는 예 노릇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하겠지 누가, 아니, 어른 노릇 해야 할 때 노릇 하라고 그랬고, 애 노릇 해야 할 때 어른 노릇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속상해서 병이 들까 봐, 자기의 속박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효(孝)고 거짓이 아니죠. 또 자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못하죠? 그게 거짓 아닌 거짓이면서도 아주 참, 뜻이 깊은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거짓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질문자(남): 네, 스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어른이 다 됐다고 우기는 그런 입장에...

## 모든 것을 근본에다 하나하나 놓고 간단면

##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고가 몰락 그냥 없어서

거기다 맡기고 먹되... 옛날에도 이런 점이 있죠.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어요. 제자가 생각을 하니 참 무엇을 어떻게 갖다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통을 들고 나갔어요. 지렁이를 그냥 수백 마리쯤 잡아서 죽고 아 가지고선 그거를 체에다 착 받쳐 가지고 버리고선 '지육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육을 보내면 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라니까 '이게 무슨 물건데 이렇게 맛있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를 고은 물입니다.' 하고선 갖다드렸더니 그것을 먹고 병이 완쾌돼서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것은 풀뿌리라고 했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육에 갖겠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아닌 거짓이 효과가 된다 이렇죠.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오직 그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면,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풀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까.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어려운 먹고 살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먹으면 되는데, 지금, 왜 이런 공부들 하라고 하겠습니까?

▲질문자(남): 스님께서는 먹히는 고기나 먹는 사람들도 다 방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큰스님: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런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불림없는 사람들 같다면 모든 걸

30면으로 계속

